제시해 주었다고 보여진다。 그의 민족독립투사로서의 면모가 이처럼 약여하게 부각되는 것은 이 집약된 선언서 속에 명확히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기미년의 감격을 재현하기 위해 천도교 보성사 사원 일동이」 봉기하여 끝까지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감연히 결의하고 선언하겠음을 명확히 제시하여 그들의 투쟁목표가 무엇인가를 얼른 체득할 수 있게 방향을 손짓해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완전무결한 자주 독립에 있었던 것이었다。

한때는 일본 헌병경찰의 야만적 탄압으로 일시 위축상태에 함입했을 망정 중단된 민족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좌절해서는 아니됩니다」라고 처절하게 호소 겸 절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일인은 그의 나라로 축출해야 함을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귀결로 유도하여 일제침략자들로 하여금 억지를 쓰거나 더우기 무장탄압 같은 무모하고도 경악스러운 천인공노할 야만적 수법을 스스로 거둘 것을 종용하였다。 평화·자유·정의·진리의 우리 나라를 독자적으로 애호 유지하려는 한국민에게 맡기라는 신사적 권유와 세계 평화에 병진 순응하는 여유있고 선진적인 느긋한 자세를 취하였던 점을 우리는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비참하나 「우리는 틀림없이 광복하고야 말 것이니 민중이여 안심하고」 이 임술년(1922)의 민족운동대열에 흔쾌히 참여해 달라고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역사의 유구성과 우수성은 일본을 살찌게하고 계몽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려는 의도를 엿보게 하는 것이다。 시급히 도모해야 함과 동시에 「지금 사는 것은 사는게 아니니」 독립을 쟁취해야만 사는게 진정으로 사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감언이설에 속아 변절하는 일부 몰지각한 동지들을 규탄하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솔직히 고백하였던 것이다。 태평양회의에 거는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다해도 「우리의 독립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절규하고 우리 전도에는 영광과 행복이 있다는 희망을 국민 각자에게 심어 주면서 시위운동대열에 동참(同參)할 것을 간곡히 기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선언서는 첫째 독립의 신념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려 했으며、 둘째 이 3·1운동은 지속성 계기성(繼起性)을 강력히 나타내려는 욕구가 충만해 있음을 엿보게 하였고、 세째 우리 역사의 유구성·우수성이 일시적인 고통을 극복해서 민족의 영광을 되찾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네째는 자유·정의·진리가 가득한 우리 나라의 독립은 미구에 필연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필연성을 재차 강조 확인함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

(소춘 김기전 선생)
포덕69년 1월4일 창녕에서

소춘선생의 수도요령

신앙자는 초보적 접령체험이 중요하다

성 봉 덕

■ 소춘선생의 수도 편모

소춘(小春) 김기전(金起瀍=起田)선생은 갑오혁명운동이 일어났던 포덕 35년(1894년)에 평안북도 구성군 사기면 독송동(沙器面獨松洞)에서 한학자이며 연원두목이신 김정삼(金鼎參) 어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은 포덕 41년(1900년)에 동학에 입도、 많은 포덕을 하여 명법포(明法布) 주간포덕사와 구성군 종리원 종리사로도 역임하면서 많은 업적을 쌓으신 어른이시다。

어린 시절 소춘선생은 부친과 같은 두목들이 집에 내왕할 때마다 그 분들의 높은 덕망과 언행을 우러러 보면서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하고 흠모하였다 한다。

부친 역시 총명하고 덕성이 갖추어져 있는 아들을 기특히 여기면서 장래 천도교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로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형님은 농사를 도맡아 했고 소춘선생은 한학을 거쳐 구성읍내에 있는 「천도교 강습소」에서 1년간 신학문을 공부했다。 그 후 구성교구 공선원으로 잠시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 보성전문 상과를 졸업하였다。 소춘선생의 말에 의하면 거의 고학하다 시피 했다는 것이다。

포덕 58년(1917년)에는 매일신보 기자로 들어

가 평양에 파견되어 통신원생활을 하다가 3·1운동 이후 서울 본사에 올라와 활동하였다.

당시는 3·1운동 이후라 천도교에서는 청년들의 활동을 크게 장려하게 되어 포덕 61년(1920년)에는 천도교청년회가 발족, 저 유명한 종합잡지 「개벽」을 간행하게 되었다. 이때 개벽지의 편집을 위하여 소춘선생은 적은 보수를 무릅쓰고 천도교 일선지도자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이후 천도교청년당두를 위시하여 어린이운동·농민운동·비밀결사인 오심당 등을 직접 지도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그런데 소춘선생은 평소부터 수도에 남달리 특출하였지만 맹수련으로 들어 가기는 해주요양소에 입원했던 포덕 77년(1936년)부터라고 짐작된다.

해주요양소에는 신언춘(申彦俊)선생(상해에 있으면서 신인간에 많은 글을 기고하였는데 바로 「신일철(申一澈)」교수의 아버님이시다)과 같이 입원하였었다. 병세는 폐결핵 제3기로서 매일같이 각혈을 쏟아야 했다. 그런데 6월경 선천(宣川)에 사는 박씨 부인동덕이 뜻밖에 찾아와 영부를 모셔주어 이것을 음복하고 기적같이 회생하게 되었다.

필자는 포덕88년 4월에 소춘선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화를 직접 들었다.

해주요양소에 입원한 분들은 수고하는 간호원에게 보답하기 위해 몇 10원씩 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저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단돈 5원밖에 주지 못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여 흰 봉투에 넣어서 공손히 간호원에게 내 밀었다. 그 간호원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제가 표시하는 정성이 고마웠든지 그 날부터 각혈할 때마다 치마에 받아가면서 끔찍히 간호해 주었다.

병세는 그렇다고 호전되지는 않았다. 심신이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서 의사도 약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절박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마침 이때 뜻하지 않았던 선천 박씨 사모가 찾아 왔다. 박씨사모는 영약(영부)으로 많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었다. 대뜸 병실에 들어와 청수를 모시고 영부를 그려 나에게 주었다. 그때 저는 웬일인지 「이것을 먹으면 나는 살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것이 문득 솟아 올랐다. 며칠을 계속하여 영부를 모셔 먹은 결과 기적같이 병세가 호전되어 갔다. 약 2개월후인 8월 초경에는 완전히 소생하여 한울님과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염이 북바쳐 올라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소춘선생은 바로 요양중에 이러한 기적의 종교체험을 얻으시자 점점 수도가 진경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해 9월 22일에는 퇴원하여 우이동(봉황각 입구 초가집과 봉황각뒤 골짜기에 와서 정양과 수련을 계속하였다. 여기서 약 4년간을 오로지 수련에만 전념한 것이다.

포덕 83년(1942년)에는 경주 용담으로 갔다.

용담정 뒷 골짜기, 마정 안쪽에 초막토담을 짓고 거기서 이른 봄부터 수련을 시작하였다. 당시 용담정에는 최윤사모님(해월신사 따님)이 계시어 소춘선생의 식사 등 일체를 돌보아 주었다. 소춘선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다시 대신사께서 득도 이전에 입산수도했던 양산 천성산 적멸굴(千聖山寂滅窟)에 들어갔다. 포덕 84년(1943년) 가을철(9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이었는데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노천생활의 농산수도(籠山修道)에 임했던 것이다.

소춘선생의 많은 수도경력 중에서도 이 용산수련의 맹수련은 대표적인 수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절 속에서 찾은 참뜻

49일간을 세상과 딱 끊어버리고 고독과 싸우는 농산수련에서 소춘선생은 여러가지 많은 종교체험을 쌓았다. 입산수도라 하여도 간혹 찾아오는 사람도 만나고, 동행자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반찬감 등을 사러 잠시 하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농산수도는 동행자도 없을 뿐 더러 방문객도 있어서는 안되며 오로지 자기 혼자서만 수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소춘선생은 높은 산 위에 있는 자연 동굴에서 노천생활을 하다보니 우선 기거가 매우 불편했다. 비바람이 불고 추위가 엄습해 오면 잠도 제대로 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조식(粗食)을 하기 때문에 공복감도 대단했고 때로는 멧돼지떼가 찾아와 놀라게 했으며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온갖 공포감이 엄습해 온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고절감(孤絶感)이었다고 했다. 소춘선생은 적멸굴에서의 고절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폭풍우와 같이 몰아오는 초형용(超形容)의 고절감(孤絶感), 인간이, 인간이란 외연을 딱 끊고 중천세계(인적을 절한 고산심굴)에 적연독거(寂然獨居)할 때, 때로 몰아오는 고절감은 참으로 굉장한 것이다. 울어도 못다하니 그 심각한 적막, 애수, 비장감!

소춘선생의 그때 겪으신 고절감은 대단했던 것 같았다. 아마 대신사께서 이 자연동굴을 적멸굴(寂滅窟)이라 이름한 것도 이런 고절감을 체험하고 명명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제 적멸굴의 기도를 마치고 도우들에게 수도를 권장한 소춘선생의 말씀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단식과 농산생활을 하는 중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보통시에 느낄 수 없는 어떤 오경(奧境) 극처(極處)에 도달하여 자신도 생각할 수 없는 대신념, 대사명을 감득하게 된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고난과 위험과 불안을 동반하는 생활을 모행(冒行)하는데서 신심의 무한 연성(鍊成)을 체득하게 되

기 때문이다。무릇 죽엄을 각오하고 죽엄을 목전에 놓고 능히 이것을 대치해서 의연히 초극한다면 참으로 숭고、위대한 행사이다。그런데 단식이나 심산용거(深山籠居)의 생활은 적어도 생명을 내기하는 수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통 때의 감념(感念)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귀한 시련과 때로는 높은 경애를 얻게 되는 것이다。

평상시에 가져보지 못하던 대자비·대인애·대용허(大容許)의 무상지덕을 감득하게 된다。모든것이 그리웁고、모든 것이 반가웁고、적은 새 한마리를 위하여도 자기의 전심정을 허여(許與)하게 되고、자기 평생의 모든 원수를 일률용허하게 되어 국가사회、동포창생 내지 군생만유(群生萬有)를 위하여 보다 봉사를 하고 싶은 지정(至情)이 하염없는 눈물로 더불어 공발(共發)하나니 모든 성자의 이른바 원수를 사랑하고 중생을 자비하여 능히 맹수류까지를 어루만져서 타심(他心)없는 것을 이러한 고절한 수행을 하는데서 부지중 빚어진 지경에 힘 입음이 상상키 어렵지 않다。

절대의 고절은 사람의 감정을 녹히여써 순화(純化)·성화(聖化)를 촉진함이 있는 반면에 사람의 의지를 철과 같이 견고케하는 일면이 있다。

한마디로 줄이면 이번 농산생활에서 가장 핍진(逼眞)하게 감득된 것은 이 천지 이 인간의 존재가 내 심식(心識)안에 종래의 어느 때 보다도 뚜렷하게 들어 왔다는 것이요、동시에 한울님、스승님과 한단계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기화의 체험을 맛보도록

적멸굴 수련을 마치신 소춘선생은 포덕 85년(1944년)부터 남녀 도우들에게 우선 초보적인 종교체험을 하여 보도록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초보적인 종교체험이란 우리교에서 말하는 기화(氣化) 즉 강령을 말한다。소춘선생은 ①먼저 자기의 영문(靈門)을 열어 「모신 한울님(內有神靈)」의 신령을 교통하는 공부가 있어야하며 ②그 신령한 터전 위에 열세자의 공부가 지극하여 참으로 솔성수교(率性受敎) 그 도를 깨치며 그 지혜를 받는 기화지기의 그 성스러움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제 소춘선생이 강조한 점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소춘선생이 강조한 수도 요령〉

나는 나의 적은 경험에 의지하여 여러분 도우에게 접령체험(接靈體驗)이 있기를 간절히 권하는 바이다。왜냐하면 경전에 의지하여 다만 교의적(敎義的)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으로서는 무슨 수양서적을 보는 이상의 효과가 없다。실지로 오로지 접령체험을 가져 보는데서 비로소 참된 도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접령이란 불교에서도 강령이라하여 법화경에 부처님강령의 본치(本致)가 설명되어 있으며、기독교에

서도 성신강림(聖神降臨)이라하여 바울이나 루터 같은 사람도 이 성신강림을 받음으로써 대성도가 되었다。

강령이란 신이 접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요 오직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자기 안에 모신 한울님의 지기(至氣)가 자기 몸의 각 부분에 흡족하게 흘러 내리는 것을 말한다。또한 강령은 이렇게 한울님의 영기와 통하는 즉 영문을 여는 첫 공부이기도 하다。우리 남녀 도우는 한분도 빠지지 말고 꼭 접령체험을 하시기 바란다。

접령은 한울님의 내주(內住) 즉 내유신령 외유기화를 직접 증험하는 길이며 접령체험을 함으로써 접령 강화를 통하여 스승님 되신 그 심경、그 신격을 만분지 일이라도 알게 되며、접령은 자기를 정화성화(靜化聖化)시키고 자기를 보충시키고 자기를 기쁘게하며 도성덕립의 완성을 가져다 주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접령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나의 적은 경험에 의하면 주문 외우는데는 반드시 그 방법이 있을지니 몇가지를 예시해 보겠다。

우리가 주문을 외우려 할 때 먼저 가져야할 점은 「송주」에 대한 의욕이다。이 주문 속에 씌여있는 그대로 지기대강을 얻고 내유신령을 증험하고 지화지기를 체득해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욕이 있어야 한다。3·7자의 체험은 곧 시천주의 체험이요、시천주의 체험은 곧 내유신령의 무궁생명의 체득이다。이것이 인간 일생의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우리가 주문을 외우려 할 때에는 마치 대제사장(大祭司長)이 폐백을 받들고 성소에 들어가 대제를 받듬과 같은 지극하고 경건한 마음으로써 일체를 차단하고 오로지 한울님을 모시는、한울님 뿐의 세계에 드는 강한 심고를 행하여써 한울님의 신령과 친면하고 직접하고 교통하여 그 지기와 그 영덕을 받아 내리는 심태(心態=즉 분위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송주」할 때에는 반드시 구절구절이 그 뜻을 생각하고 또 모든 태세(읽는 장단과 고저)를 꼭 한모양으로 되풀이하되 그것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그리고、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것은 첫째 정신통일이요、또 정신을 통일하되 내유신령의 한울님께로 통일하자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한울님께로 통일만 되면 즉 한울님 뿐의 세계에 들기만 하면 한울님의 일체는 곧 내게 열릴 것이다。그런데 이 정신통일은 너무 길지 아니한 똑 같은 생각(念)을 엄정하게 되풀이하는 것 밖에 그 이상가는 묘법이 없다。

주문을 읽을 때 뜻을 생각치 않고 마음을 비우고 무사무념으로 읽는 것이 어떠냐 하는 편도 있다。불교

의 선(禪)에는 이 무사무념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있으니 이른바 「지관(止觀)」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어려운 것이니 어떤 주장되는 생각을 딱 세워 가지고 그 생각만을 빈틈없이 계속 되풀이함으로써 모든 잡념을 가질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기금지」하면 「허령창창 무사불섭 무사불명」까지를 생각하고 「시천주」하면 적어도 「내유신령 외유기화」까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나의 생각은 차츰 제 길로 들어서게 되어 그 주문생각이 점차 간단해지며 필경은 주문생각을 잊어버리는 정신통일의 지경, 곧 무아의 지경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 무아의 지경은 곧 한울님에 합정(合定)하는 지경인데 이 지경이 가까와오려 하는 그 때가 되면 벌써 「지기」가 몸에 내리기 시작하며 여기에서 점차로 더 나아가면 완전히 무아지경에 든다。 여기에는 한울님의 영광(靈光)이 빛나고 또한 한울님의 그 도를, 그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주문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관문은 잡념이 떨어지기까지의 기간이다。

그런데 접령상태를 만나게 될 때 혹 사람중에는 허령을 염려하는 이가 있으나 이것은 쓸데없는 염려이다。 주문의 올바른 뜻을 생각하면서 정신이 통일되고 순화되는데 그 밖에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오직 자연스럽고, 성스러운 한울님의 지기가 내리고 한울님의 영덕이 드러나는 광명이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주문 읽는 방법으로는 먼저 3·7자를 현송하여 충분한 강령을 얻어 몸에 항시 기화의 신이 있게 하고 또한 몸에 기화가 흡족하게 퍼지게 한 후부터 주로 13자 주문을 묵념하여 깊은 시정(侍定)에 들어가 크게 정력(定力)을 얻는 공부를 할 것이다。 목이 쉬고 앉은 다리가 아프고 온 몸이 맥이 풀리는듯 할 때에 「이때다」하고 한층 정력을 들여야한다。 그러면 기이하고 두려웁도록 문득 목이 열리고 다리가 거뜬하고 온 마음에 환희가 생기는 그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고개를 넘어야 한다。

그런데 주문 읽을 때 유의할 점은 현송을 하거나 묵념을 하거나 주문이 내 몸 밖에 있지 않게 해야 한다。 자못 표현하기가 어려우나, 주문 읽을 때에 내가 가만히 생각하여 주문의 자초지종이 내 몸 안에 포근히 담겨지는 것을 느끼도록 힘쓸 것이다。

효과적으로 이런 식의 주문을 읽으려면 먼저 강하게 심고하고 주문 해석문을 3회 정도 읽고 나서 하면 더욱 좋다。

주문 읽는 시간은 9시 청수 후에 반시간 내지 1시간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앉은 자리에서 약 1시간 이상의 송주를 하면 깨달음이 있다。 특별한 맹수련을

정하여 할 때에는 그 기간은 21일, 49일, 105일을 하게 되는데 스승님들은 보통 49일간을 많이 택하였다。 하루 주문 읽는 시간도 한정이 없다。

포덕 83년(1942년)에 소춘선생의 수도심경을 읊은 시 한편을 소개하여 수도에 보탬하기 바란다。(이 시는 해방후 작곡되어 부르기도 한 바 있다。)

기 도

내마음 위에 한울님 스승님의 지경(智境)이 열려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

1

한울님 스승님 날(我) 주장 합소서
온 몸과 온 정신 다 님 것이 오니
일동정 일어묵 님 섭행(攝行) 합시고
날 주장하시사 님 주권 잡소서

한울님 스승님 날 주장 합소서
일체의 세마(迷妄)를 다 항진(降盡)합시고
기유정(氣有正) 심유정(心有定) 합기덕 줍시며
날 주장하시사 님 동작 뵙소서

한울님 스승님 날 주장 합소서
이 시련 고란을 더 길게 맙시고
기이코 망극한 참 험도(驗道) 줍시며
날 주장 하시사 님 정사 펼소서

2

한울님 스승님 날 소유(所有) 합소서
이 신명 일생을 다 님께 붙이고
오로지 님의 길 다름질 치오니
날 소유하시사 님 기구(機構) 삼소서

한울님 스승님 날 소유합소서
그 신령 그 호탕 그 성경 그 평정(平靜)
그 지화(至化) 그 지기 늘 강화(降化) 합시며
날 소유하시사 님 강령합소서

한울님 스승님 날 소유합소서
님 일흠 님 영(靈)에 날 두어 줍시고
온전히 님 만이 나이게 합시며
날 소유하시사 님 현신 짓소서

3

한울님 스승님 곧 감응합소서
외접령 내 강화 그 영부 뵙시고
내 맘이 곧 네 맘 그 구경(究竟) 줍시며
곧 현현(顯現)하시사 님 영광 놋소서

한울님 스승님 곧 감응합소서

천·인·물(天·人·物) 과·현·미(過·現·未) 기 맥힘(墻壁) 트시고
무궁 울 무궁 나 소연(昭然)케 합시며
곧 현현하시사 님 나라(心上天國) 셉소서
한울님 스승님 곧 감응함소서
님 안에 내이고 내 안에 님시며
님 분신(分身) 나이요 나의 온(全) 님시니
곧 현현하시사 님 성공함소서

〈포덕83년 4월〉

수도의 제도화

소춘선생은 일반 도우들에게 수련을 장려시키기 위해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제도적으로 수련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그 요점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소춘선생의 주장점〉

오늘 우리 교회의 집무기구 즉 중앙의 총부와 지방의 교구 등 일체기구를 스스로 수행하여 그 수행을 일반교도에게나 또 외타인(外他人)에게 넓히는 기구처럼 구성시킴이 어떠할까 하는 것이다. 즉 우리 교회 기관을 단순한 사무기관처럼 만으로 인식관념하여 그 주어지는 일정업무를 취급함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적어도 일면집무 일면수행의 이념과 실제를 우리 교회의 기구조직에 참윤(滲潤)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것이다. 이것을 실제화시킴에는 물론 여러가지 기술과 방법을 요하나 종교단체의 기구조직은 적어도 이러한 정신, 이러한 분위기에서의 축성온양(築成醞釀)되는 것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의 살피고 또 살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함에 있어 우리의 전 기구를 한층 경건하고 능력있고 권위있는 조직체가 되게 하며 그리하여 지화지기——지성에 나아가게 하는 이 땅 위의 유일성소가 되며 그 작업장 그 시책처가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백번 천번 소리를 거듭하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그 어떤 것이든지 이를 살피고 또 살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이것을 우리 스스로 처결짓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문제를 문제 그대로 여실히 감득하지도 못하고 처응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놓아 쏟아버리고 특별한 하염이 없이 그날 그 장면을 도로한다면 여기에서 생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결과를 무엇으로써 대당하리요.

『수도해야 된다. 수도해야 된다. 옛날 동학시대와 같이 다시 수도해야 된다. 수도가 없이는 일체가 없다』 이러한 소리 이러한 생각은 무슨 한울에서 내리

는 성음과도 같이 우리의 귀밑을 때리고, 우리의 마음 속을 찌른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 교회, 우리 도인에게 주어지는 참으로 진절하고 긴박한 문제이다. 이 문제, 이 천명을 어디까지 놓지지 말고 개인으로나 기관으로나 또는 중앙과 지방으로나 반드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피고 또 살피어 갖은 용의(用意), 갖은 방법, 갖은 시설로써 지성과 용맹으로 이에 처응해야 할 것이다.

수(修)와 학(學)과 행(行)을 완전히 연성(鍊成)해 얻기 위해서는 마땅한 수도기구(修道機構)의 조직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선 지금 곧 실행할 것은 중앙에서 2~3인 정도의 연성법사 중앙지도자를 추려 정하여 가장 유효하고 엄격한 방식을 마련 각 지방교구 또는 연원관내의 유수도인(有數道人)을 각지 그 교구 그 처소에서 일률 연성시키는 일이다. 연성기간은 비록 1주일 내외로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그 효과는 절대 클 것이다. 오늘의 교화 특히 이 수도의 실행화는 그 전과 같이 일시의 강도회 같은 식으로는 효과도 못 얻을 것이요, 비록 단기일지라도 경건엄정한 방식으로 지도자가 몸으로써 실수실행을 보여주는 즉 일정기간 중 공수공행(共修共行)하는 최엄정 유효한 연성이 아니면 안된다.

다시 말한다. 대체로 만성 또 만성에 빠진 우리 교인의 수행은 다만 연원두목 또는 교구직원의 순회권유나 일시의 강도회식 설교만으로는 실효를 내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각 지구를 통한 실지 연성의 방법을 겸행함에서 비로소 획기적인 뚜렷한 효과를 얻을 것이다.

소춘선생의 가르침은 모두 당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35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심부를 찌르는 감이 있다. 과연 일에도 치밀하고 수련에서도 깊고 깊은 선도자임을 새삼 느끼게 한다.

원래 소춘선생은 언론인 출신으로 사회와 역사를 보는 눈이 예리했다. 사회과학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요, 정치에 관한 조예도 뛰어 났다. 특히 천도교청년당 활동을 중심으로 한 소년회운동·농민운동·문화운동 등을 지도하면서 넓고 치밀한 체험도 많이 쌓으신 분이다.

이런 어른이 어째서 수도(修道)에 대해 그렇게도 강조하였을까. 추리컨대, 천도교는 고전종교처럼 세속적인 행복만을 기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존엄한 존재임을 깨우치도록 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고 세계를 살아가도록 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생생한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선해야 하므로 맑고, 깨끗하고, 엄숙하고, 황송스럽고, 두렵고도 감격스러우며 성스럽고도 영그러운 내유신령의 경지를 체험해야 한다. ■